

# 후보 몰린 광주·서울 결선투표제 도입 쟁점 부상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보기본권·건강권 신설...공무원 노동 3권 인정 검사 기소독점주의 상징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요 내용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명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표기된 4·19 혁명에 이어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이념 계승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권 강화다. 기본권 조항을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공무원 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이 갖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헌법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예외적으로만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비록 선언적이지만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헌법에 천명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협으로부터 보호 의무를 규정,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상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비록 헌법에서 빠지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는 영장청구권을 검사 외의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이 '입법자'로서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한편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순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靑 “문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은 민망스러운 일”

### 추진위 결정에 우려 뜻 전달

대한변호사협회 등 120여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적응포럼이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력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어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진위원회 일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일”이라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적응포럼은 전남 추진위 결성 소식을 알리면서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발기인 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벨평화상 3자 공동수상도 함께 추진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돌아온 '경선 룰 전쟁'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공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경선 룰(규칙)' 전쟁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당 지지율의 고공행진 속에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선 룰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후보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이 끝난 뒤 4월부터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지방선거 경선 룰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은 관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통한 경선 1회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높은 당 지지율과 많은 후보군 등을 고려해 경선을 두 차례 치르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경선 투표 방법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보가 많거나 관심이 집중된 광주와 서울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결선투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우선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경쟁하는 서울의 경우 도전자인 두 의원이 결선투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10%가 감점되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박 시장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의원은 또 지방선거 분위기를 견인하는 차원과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를 강하게 주장하며 결선투표

### “결선투표 안하면 박원순 유리”

### 박영선·우상호 도입 의견서 제출

### 민형배 “지지자 통합 최대화 효과”

### 이용섭 외 후보자들 동조 분위기

### 당 지도부 흥행 등 고려 도입 의견

### 28일 룰 논의 내달부터 본격 경선

쟁취를 위한 행동에도 공동으로 나섰다.

이들은 결선투표를 포함해 경선을 흥행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날 중 제출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두 의원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결선투표 요구는 민주당 텃밭으로 후보자가 가장 많이 몰린 광주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결선투표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를 제외한 일부 후보들은 민 예비후보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당내 통합과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선투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영호 예비후보는 “결선투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후보마다 셈법이 다른데다, 유불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일부 후보들이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공동 행동 등은 하지 않고 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절반을 넘은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해서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다.

결선투표제는 경선 과정을 방지할 수 있고 흥행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논리다.

반면, 결선투표 자체가 유력 1위 후보를 견제하는 목적이 크다고 주장하는 게 반대 측 논리다. 결선투표제는 후보 간 유불리가 뚜렷한 만큼 경선 룰 합의가 어렵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경선 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선투표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2~3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1차 경선을 할 수 있다”는 당의 결정을 이용해 사실상 결선투표 형식으로 경선 프로그램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 경선을 진행할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1차 경선에서 2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2차 경선을 진행할지 등은 공관위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양식 창업 5대 고민!!

##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기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징거미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양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징거미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곤 (52)**  
경남 고성 안병하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원다리새우 22kg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t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F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